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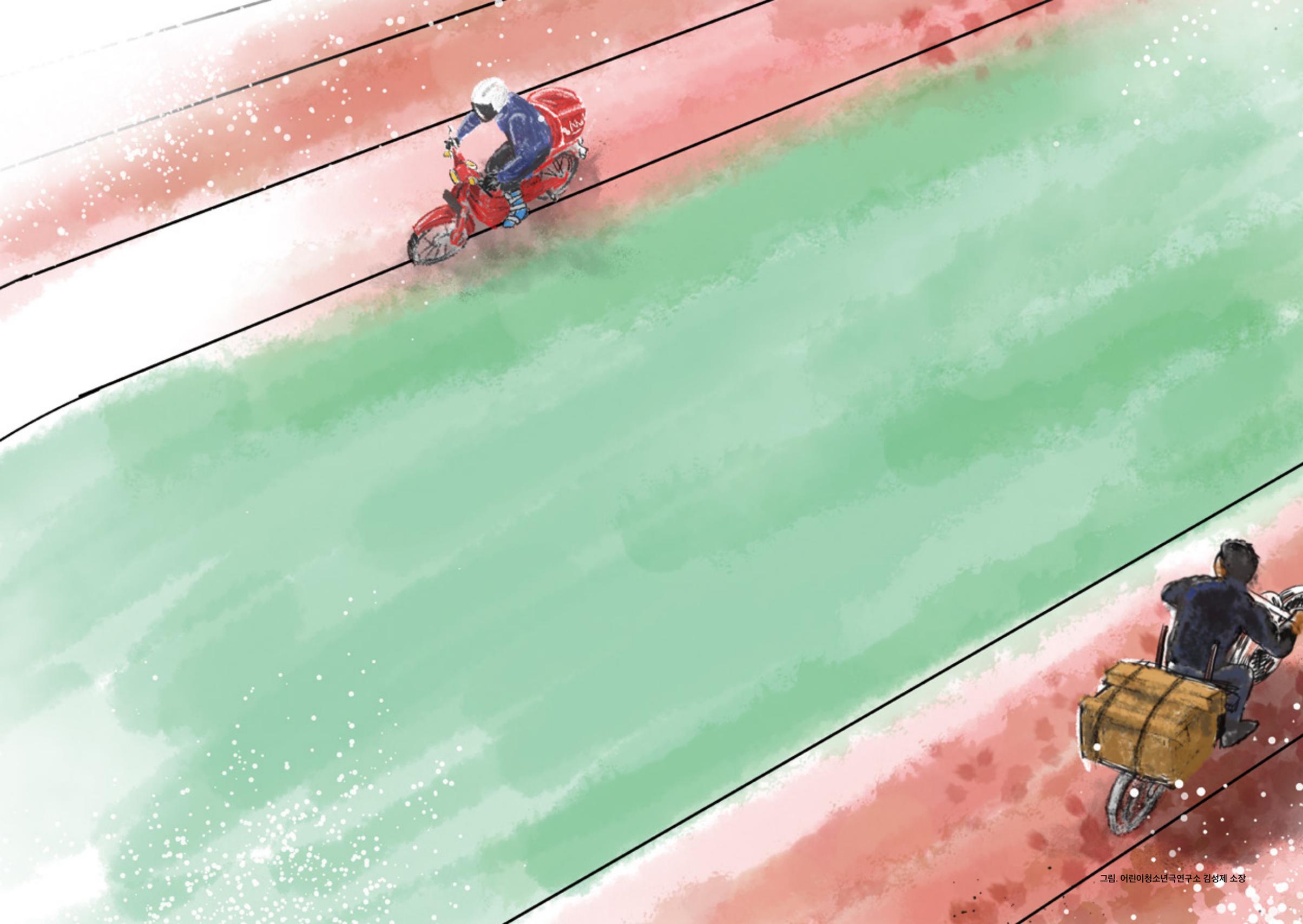
본 프로그램북이 공연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lab@ntck.or.kr](mailto:lab@ntck.or.kr)

# 자전거도둑헬멧을 쓴 소년





국립극단 청소년극  
자전거도둑헬멧을 쓴소년

원작 박완서(소설 자전거 도둑)

각색  
김연주

연출  
윤한솔

공연기간  
2019.11.21.(목) -  
2019.12.15.(일)

공연장소  
소극장 판

주최/제작  
국립극단

### 원작소설 <자전거 도둑>

1979년 발표된 박완서 작가의 단편 소설.  
청계천 세운상가 전기용품 도매상 점원 수남.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 수남이는 수금을 위해 세워 둔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자전거 도둑'이 되어버린다.  
<자전거 도둑>은 10대 청소년 '수남'을 통해 인간성에 대한 부조리함,  
노동과 우리 삶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은 18살 수남이는 배달 알바를 한다. 어느 날 절친  
명구가 명품을 입고 온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명구의  
옷이 멋있게 보였던 수남은 자신도 알바비를 모아 명구와  
같은 옷을 사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수남은 손님이 가장  
많은 크리스마스날, 오토바이가 눈길에 미끄러져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게 되고 합의금을 물어주게 된다. 분명 굶긴 것도 아니고  
조금 스쳤을 뿐인데 수남은 억울하기만 하다. 합의금을 물어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보내겠다는 차 주인의 말에 수남은 머릿속에 잊고  
싶었던 형의 모습이 뒤엉켜버린다. 뒤엉켜버린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던  
수남에게 손을 내민 빈즈! 과연  
들은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

Sunam is eighteen-year-old boy who is curious about the world around him and wants to try many things. He works as a part-time delivery boy. One day he sees his friend Myeonggu wearing expensive brand name clothes. Sunam decides to save money in order to buy exactly the same clothes. However, Sunam has an accident on the Christmas day, the busiest day for delivery men. On the snowy road, he has a slight bumper-to-bumper with a car, but he has to fork up the money for the repair. Because the car doesn't even have a scratch from the accident, Sunam thinks paying for the repair is simply unfair. But when the car owner threatens Sunam to put him in jail if he doesn't pay for the repair, it reminds Sunam of his brother – someone he doesn't want to remember. While he is struggling to come to terms with his tangled up past, Binz offers to help him. Will they be able to figure a way out this or deal?



| 소년B, 선생님, 소녀부 |  
김용희 Kim Yong-hee

연극 <구멍을 살피라> <숨통> <자연사박물관> <계곡선>



| 소년C, 선생님, 사장님, 수남형 |  
김청순 Kim Cheong-soon

연극 <강철로 된 무지개> <두뇌수술> <명왕성에서>  
<앵그리볼트> <호신술> <오후만 있던 일요일 part.2>  
<의붓기억> <고발자들> 외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 수남 |  
이주형 Lee Ju-hyeong

연극 <두뇌수술> <마당씨의 식탁> <어서오세요>  
영화 <포파라치> <해수탕여인>



| 소년A, 소녀(오수정) |  
이지원 Lee Ji-won

연극 <강철로 된 무지개> <두뇌수술> <명왕성에서>  
<안산순례길2019> <안산순례길2018>



| 주희, 교육자, 수남모 |  
박은경 Park Eun-gyeong

연극 <구멍을 살피라> <꽃이를 찾아서> <기본소득실험>  
<인공지능> <숨통> <자연사박물관> <이웃> <죄와 벌>  
<이방인>



| 명구, 교육자, 수남형 |  
이세준 Lee Se-jun

연극 <Take Me Apart> <폰팔이> <이방인> <치기, 어린>  
<어린 왕자> <장정아 단편선> <딱, 일주일만>  
영화 <액션히어로>



| 헬멧소년 |  
김원태 Kim Won-tae

연극 <모의>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메롱이의 밥상 일기> <피노키오>  
<별주부전>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타잔> <흥부와 놀부>  
<크리스마스의 비밀>



# “달립니다 오늘도 나는 달립니다.”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생계 유지형, 소비 욕구의 충족 등 다양한 이유로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받았던 서비스, 상품 등에 청소년 노동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노동 환경과 노동의 질은 과연 건강할까. 일을 하다 다치거나 하루아침에 잘려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청소년 노동은 노동의 최하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우리가 청소년 노동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상품들을 통해 값싼 편의를 누렸다면 값싼 편의로부터 치러야 할 대가는 노동의 최하층에 있는 청소년 몫이다. 이런 현실로 청소년 노동은 누구보다 상처받기 쉽고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며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청소년에게서 헬멧을 쓴 소년을 발견했다.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헬멧 하나뿐인 상황 속에서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은 수많은 청소년 노동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에서의 수남과 헬멧소년은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 믿는 헬멧 하나에 의지한 채 도로를 질주한다. 질주 끝에 그들을 데려다 놓는 곳은 그들이 가길 원하던 곳이었을까? 수남과 헬멧소년에게 묻고 싶다. 원하던 곳으로 가든 그렇지 않든 그들은 일단 달린다. 헬멧 하나에 의지한 채 도로 위를 질주하는 그들의 모습은 위태롭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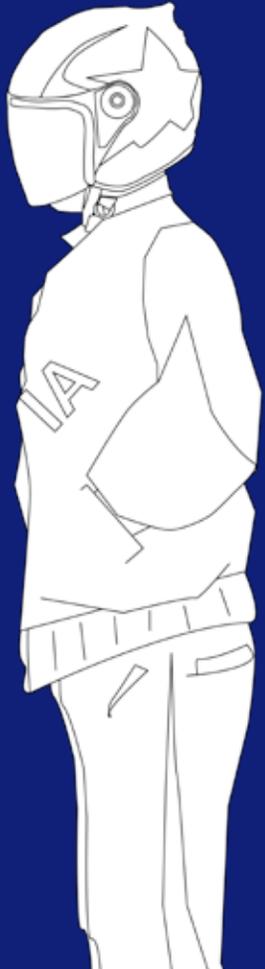
## “추잡스럽게 남들 앞에서 쳐먹는 거 보여주고 싶냐?”

빈쯔는 원작에서는 없던 인물이다. 빈쯔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노동의 형태를 보여주고 싶었다. 청소년 희망직업 1위가 유튜버인 시대에 앞서 손쉽게 돈과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유튜버를 꿈꿔볼 만하다. 빈쯔는 먹방을 하는 유튜버다. 구독자가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빈쯔는 카메라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치킨을 육여넣는다. 정작 현실세계인 학교에서는 빈쯔에게 이름조차 묻는 이 하나 없다. 가정에서는 소통이 단절된 아버지뿐이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기 일쑤인 빈쯔에게 먹방은 하나의 소통이자 출구가 된다. 이런 빈쯔에게 과연 추잡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빈쯔와 빈쯔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기성과 타협할 수 없는 갈등이 서로를 향한 폭언과 폭력으로 나아가기까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빈쯔는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세대 간의 소통을 거부하고 그 폭력은 생생하게 촬영되어 새로운 형태의 기형적인 노동이 되고 세대 간의 대결이 된다.

김연주 Kim Yeon-ju

주요작품

- 2018 <육시내고향> 연출 및 작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공연)
- 2019 <양질의 단백질> 연출 및 작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교공연)



# 작품 안에 있는 것, 작품 밖에 있는 것

염혜원\_자유기고가

윤한솔 연출가가 청소년극을 만든다는 얘기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 궁금했다. 아니, 사실 긴장했다. 그의 전작들이 보여준 문제의식과 형식에 관한 미학적 태도는 때론 지적이면서도 원색적인, 예민하지만 날것의 거침으로 무장한, 그리하여 거침없이 내리꽂힌 도끼자루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예의 도발적이며 똘똘 모를 “삐딱함”이 묻어나올 것이라는, 솔직히 선입견이 있었다. 그런데 인터뷰 말미에 느낀 것인데, 그는 이 도끼로 큰 자국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깨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테면 사람들의 무디어진 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연출가 나름의 처방인 셈이었다. 하지만 이 도끼날의 방향이 이번 작품에서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먼저 연출가 자신에게 향했던 것 같다.

“작품을 만들다 보면 연출가가 생각한 그림과 작품의 상황이 하나로 만나 수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럴 때마다 계속 바뀐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계속 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다. 청소년, 그리고 거기에 호응하는 성인의 역할, 청소년극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방식을 작품의 형식으로 가지고 온 셈이다. 청소년의 대화법, 청소년에 관한 이미지, 성장에 관한 기존 서술 등을 어떻게 버릴지 계속 모색하는 중이다.”

‘수남’과 ‘헬멧을 쓴 소년’은 예외지만, 이 작품에서는 배우가 고정된 캐릭터를 맡지 않는다. 장면별로 역할이 계속 바뀌며 또 열심히 달린다. 특히 ‘수남’과 ‘헬멧을 쓴 소년’은 공연 내내 쉬지 않고 움직인다. 장면이 바뀌면 바로 다음 장면에서 배탈 나가는, 노동의 강도를 표현하는 완벽한 메타 방식은 아니지만 공연에서 계속 뛰고 흡사당하는 그런 순간을 통해 청소년 노동, 청소년 인권 등이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연출가는 전달하고자 한다. 말하지 않더라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하는 청소년이 분명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주변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어른도 있다.

“지난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픈 리허설 때도 말한 것인데, 이번 작품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부정하는 것, 없다 치고 사는 것을 들이미는 거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소녀 장면을 들여다보면 딸을 꾸지람하는 아빠가 등장해 학교 가라고 하는데 그 역시 평일 낮에 노는 어른이다. 그런 어른이 강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 청소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싶다.”

〈자전기도독헬멧을쓴소년〉은 원작에 그려진 시공간을 건너와 2019년 현재를 배경으로 한다. 여기에도 어른다운 어른은 없다. 자기변명에 치중하는 기성세대를 보면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부정 화법으로 어른을 익히게 되는, 윤한솔 연출가도 그랬다고 한다. 그는 중학생 때까지는 내성적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정말이지 세상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서 “건드리면 다 죽어 버릴 거야” 태세의 아이였다고 한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사고도 잦았다고. 그런 그가 뒤늦게 연극을 공부하던 시절, 9.11 테러를 목격하게 되었다. 이날 그는 세상에 태어나서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난생처음 겪게 되었고, “이게 뭐지?” 하며 몇 달을 보내는 사이 그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한때 연극을 하는 유일한 목적이

유명한 연출가가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게 그였다.

“하나의 사건을 만나는 게 공연이라고 본다. 사건이 되려면, 어느 지점에서 견딜 수 없음이 있어야 한다. 외형이든 내부든 간에 견디기 어려울 때 사건이 발생하고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 물론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일 수 있다. 접촉사고가 합의되면 사건이 아닌 것처럼.”

연극을 한두 달이라도 안 하면 바로 몸이 아프다는 그는 2007년 연출가로 데뷔한 후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극단 작업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공연까지 합치면 아마도 100여 편은 될 것 같았는데, 이런 그조차도 내년 이후에는 일을 좀 줄이겠다는 생각을 한다. 점점 밀천이 떨어지고 있다고. 무언가를 읽거나 고민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하지만 그는 냉철한 머리보다는 뜨거운 피로 움직인다고 본다. 그는 연극 그 자체를 통해서 생겨나는, 유지하다 할지언정, 그 희망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예술가는 대안적 상상력을 제시한다. 근데 실은 이건 대안이 될 수 없다. 만약 그 대안이 유효하면 정책이지 예술이 될 수 없다. 결국 상상인데 이걸 공연으로도 구현하지 못한다. 그 상상력에서 기인하는 극히 일부로 공연을 만드는 거다. 이 작품의 대안적 상상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극단적 명제이기 때문이다. 이걸 나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딜레마로 통한다. 그것을 뿌리에 두고 현실적인 정황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한다. 열아홉에는 어른을 부정했지만 결국 나도 오십이 다 되어간다. 거기서 시작하는 다른 고민을 배우들과 나눈다. 정책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실은 이 모든 게 감각의 문제라고 본다. 그러니까 감각이 결여되면,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는 아이를 그냥 혼내는 거다. 그 아이가 어젯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이런 감각이 원래 없는 거라 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공히 이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 이익집단으로서의 연대가 아닌, 감각의 연대로서 이어진다면 사회 구조에 관한 고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대안이 될 수 없는 게 대안적 상상력이라고 언급한 윤한솔 연출가는 그런데도 이 상상력을 가지고 계속 연극을 만든다. 아주 멀리 바라본다면 연극이 미약하나마 이 세상을 아주 조금을 바꾸지 않겠냐는, 그런 희망을 연출가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물론 작품 안에는 어떤 기대나 희망 같은 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걸 작품 밖에서 찾아야 할 몫이다.

윤한솔 Yoon Han-sol

극단 그린피크 상임연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주요작품

· 연극 〈강철로 된 무지개〉 〈호신술〉  
〈이야기의 方式, 춤의 方式-공육진의 병신춤 편〉 〈할미꽃단란주점 할머니가 멜론씨를 준다고 했어요〉 〈인터넷 이즈 씨리어스 비즈니스〉 〈174517〉 〈치정〉  
〈젊은 후시딘〉 〈1984〉 〈두뇌수술〉 외

수상내역

· 2016 제18회 김상열연극상  
· 2013 제34회 서울연극제 '올해의 젊은 연극인상' 〈아름다운 동행〉  
· 2012 제5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두뇌수술〉  
· 2011 제2회 두산연강예술상 공연부문



학생들과 노동인권에 대한 수업을 하다보면 빠지지 않고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노동 또는 노동자에 대한 인상을 묻는 활동이다. 노동(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의 그림을 보면 상당수가 노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노동에 대한 학생들의 시선은 실은 어른들의 시선을 반영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인정하든 않든,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가 쉽지는 않다. 노동을 하고 싶지 않은 것,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심지어 범죄자의 인상을 노동자의 인상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밤에 출출해서 집에서 치킨을 시켰다고 해보자. 배달을 온 아르바이트생을 바라보는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나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노동의 현장으로 나온 학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치킨을 배달하고 간 뒤 자신의 자녀에게 던지는 한 마디가 이렇 수도 있다. “너는 운이 좋은 줄 알아. 부모 잘 만나서, 일하지 않고 편하게 공부하고 있으니... 그러니 공부나 열심히 해.” 또 하나의 시각은 학생의 본분인 공부는 하지 않고 (정상에서) 일탈한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당연히 “너는 저런 친구와 어울리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는 말로 대변될 것이다.

두 개의 시선에 공통으로 깔려 있는 것은 ‘불량’이다, 不良! ‘좋지 않다’는 뜻이다. ‘좋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일 터이고, ‘좋지 않다’는 그 ‘기준 안에 들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이다.

청소년은 필시 학생-이런 가정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35만여 명이나 있기 때문이다.-일 것이고, 학생은 공부를 해야하는 존재이니,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나 청소년은 불량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에서 벗어난 청소년은 애써 외면한다. 불량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이런 불량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양(良)’ 보다는 ‘불량(不良)’을 더 많이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소수의 성적 우수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준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부-정확하게는 성적-라는 한 가지의 기준으로만 보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많은 학생들은 공부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친구들이다. 이들은 공부라는 기준에 들지 못했거나, 애당초 들어갈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다.

10여 년 전, 수업중의 일이다. 수업중에 하도 잠을 많이 자는 친구가 있어서 기꺼이 깨워 이야기를 하였다. 아주 진지하게. 물론 나의 의도는 ‘너는 너의 미래를 위해서 잠을 자면 안되고, 돈 몇 푼 벌어서 유혹비를 충당하려는 목적의 알바를 당장 때려치우고, 지금은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뒷통수를 얻어맞고 말았다.

이 학생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다. “제가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이 현재 400만원 정도인데요, 계속 알바를 해서 2,000만원을 모아 치킨집을 차릴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인데, 이 학생은 정확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앞으로 (수업중에) 꼭 자도 좋아.^^” 이 친구에게 굳이 내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미 이 친구는 자신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을 쓰기 며칠 전 3학년 수업 중에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3학년 2학기, 그것도 11월에 수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업 같지 않은 수업을 해오던터라, 이 날은 그냥 마음 편히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알바를 하니?”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맛있는 밥을 사먹기도 하고요. 필요한 것을 사고,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기도 해요.” “쯔쯔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 도움없이 살아보고도 싶고요.” “솔직히 부모님께 용돈까지 받기에는 미안하잖아요.” “공부도 잘 못하는데, 돈까지 받기에 미안해요.”

“알바 하면서 힘든 건 없니?” “진상고객들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사장님이 힘들게 할 때도 있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예전에는 왜 그렇게 말을 안들었니? 심지어 쌤들에게 개기기도 하고...” “아니, 쌤!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원래 (고등학교) 1, 2학년 때에는 월 잘 몰라요.” “그냥 반에 아이들이 있으니, 어깨에 힘 한 번 주려고 하는거지요~~ 왜 그런거 있잖아요? 다 아시면서~~”

이 친구들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으로는 불량한 학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웬만한 어른들보다 더 어른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살짝 농도 치고, 자신들의 과거(불과 1-2년 전의 일들이지만)를 인정할 줄도 안다. 어른들 중에 이리저리 못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친구들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에 온다고 했다. 공부를 위해서 학교에 오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미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끈대 같은 선생들과 싸우며, 아르바이트 일터에서 진상고객들과 사장들과 신경전을 벌이며, 그들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청소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이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좀 더 친숙할까? 편의점에, 뷔페와 식당에, 패스트푸드점에, 놀이공원 등에서 이들은 이미 중요한 노동력이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은 가려져있다. 아니 애써 눈감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청소년 노동은 축은하거나, 불량한 것이 아니다. 일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보고, 일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나가는 연습을 하고, 일을 통해서 사회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슬리퍼를 신고, 때로는 담배를 한 개피 피나물고, 때로는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굉음소리를 내며 타고 지나가는, 왠지 불량스럽기만 한 어느 고빠리가 음식을 배달해 온다면, 이제 그만 축은해줬으면 좋겠다. 그들은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당연한 청소년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극중의 수남이는 내 제자이고, 내 자식이기도 하다. 물론 학생과 청소년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수남이는 어디에도 있다. 아주 가까이에.

#### 글\_장운호

안양공고, 산본공고에서 학생들과 함께하였고, 지금은 이천제일고에서 기계를 가르치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좋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 그리고 수남이는 어디에도 있다.

글을 보냅니다.

제가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글을 두려워하거나, 글을 쓸 때 힘들었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넘어가 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마치 길은 안개 속에서 뾰족을 찾는 것처럼, 앞에 뾰족이 있는 것 같은데,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어디로 첫 발을 떼어야 할 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어찌어찌 글을 써서 보내고 있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썼던 글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고,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다시 읽어보고... 그러면 좀 길을 보일까 싶었는데, 오히려 더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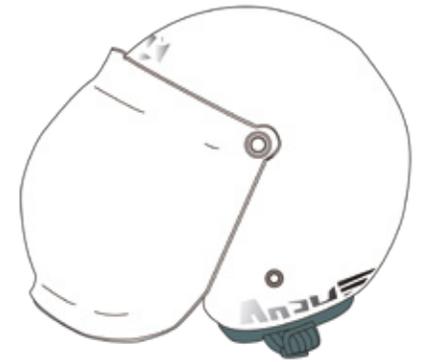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너무 깊게 생각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천성적으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기에 더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암튼 어찌어찌해서 글을 보냅니다. 글 내용이 썩 맘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공대출신이라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

그리고 왜 그렇게 글을 쓰기가 힘들었는지는 제가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 11. 13.

원고를 보내며 장운호 드림



# 오픈 리허설에서 공연 중 일부를 보고,  
수남이는 어떤 친구일까 나눈 이야기

# 수남이는,

진심이 담긴 진실된 사람인 것 같다 ... 궁금한 친구다 ... 발전하는 친구다 ... 반전인 친구다 ... 어수룩하다 ... 책임감이 강하다 ... 못 기다린다 ... 직진이다 ... 어떤 사랑을 꿈꿀까 ... 지킬 건 지킨다 ... 열심히 산다 ... 즐거울까 ... 응원하고 싶다 ... 도박에 손 안대고 벌어서 쓰는 사람이다 ... 안타깝다 ... 꿈꾸는 아이다 ... 아직 철이 안 든 아이 ... 철이 없다 ... 오래된 달걀이다 ... 조금의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 우리 주변에 늘 있다 ... 구제당하길 원하지만 체념했다 ... 내 친구

## 예술교육 참여자

- 의정부 공고 : 권현서, 김미나, 김희주, 박서윤, 이다인, 이학주, 전체연, 전해린, 함솔비
- 청소년 17인 : 강명진, 나연서, 박세은, 박정환, 서정빈, 석지민, 손예은, 양혜원, 유한서, 육선민, 윤재희, 이보배, 전예린, 주찬하, 최선호, 최지원

## 오픈리허설 참석자

- 의정부 공고 : 김미나, 강동우, 김건호, 박장수, 유상운, 이현수, 장민서, 장호림, 차준영
- 청소년 17인 : 강명진, 나연서, 박세은, 박정환, 서정빈, 손예은, 유한서, 육선민, 전예린, 윤재희, 최선호
- 문산 수석고 : 김준환, 김중빈, 엄세진
- 교사 : 김민혁(의정부 공고), 김은빈(부천 양지초), 백소정(남양주 청학고), 이봉학(의정부 공고), 장윤호(이천 제일고), 정희욱(용인 제일초), 채홍석(문산 수석고)

## 예술교육

- 김미정 교육감독
- 서현제 사진 및 영상
- 김희주 기록
- 최은정 기획

그동안 공연 연계 예술교육활동에서는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주로 작품(대본)을 탐색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작업에서는 연극을 매개로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 어떻게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마주치며, 오롯이 그 존재들을 만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연습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공연보다,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프로젝트일 수 있다. 청소년들과의 만남과 그 만남에서 오고갔던 말들과 교류된 감정들, 생각들은 단지 공연을 위한 리서치 자료로서만 수렴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연을 매개로 해서 우리는 그들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히고자 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들을 만나고자 했고, 무엇보다도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게 하고자 했다. 은유 작가(‘알 수 없는 아이의 죽음’의 저자)의 말처럼, 우리의 무수한 편견은 ‘잘 모름’에서 생겨나고, 그것은 ‘접촉없음’으로 강화되므로!

9.06	의정부 공고 청소년 워크숍(1)	· 원작 소설 및 각색본 리딩과 토론, 알바 이야기
9.08	청소년 17인과의 만남 / 각색본 리딩 및 토론	
9.09	배우 워크숍 / 청소년기 탐색 & 의정부 영상 보기	
09.20	의정부 공고 청소년 워크숍(2)	· 각색본 리딩 및 토론, 배우들이 보낸 영상 보기 · 9월 28일, 국립극단에서 공연팀과 만나기로 약속
09.28	의정부 공고 청소년과 공연팀, 만나지 못한	· 올 수 없었던 그들에게 배우, 연출, 작가의 영상 편지 “다음에 꼭 만나요.”
10.11	의정부 공고 청소년 워크숍(3)	· 9월 28일, 못왔던 이유는... ⇨ 뺨개 죄송하다고 문자보내려 했는데, 까먹, 잠도 오고, 아프기도, 핸드폰을 야간모드, 버스비가... · 공연팀에서 보내온 영상 편지를 보고, 답장 영상을 보내다. · 그리고 10월 19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
10.19	의정부 공고&청소년 17인&공연팀과의 워크숍	· 드디어 만나다. ⇨ 자기소개, 연극게임, 배우&청소년 장면 발표, 수남이에게 궁금한 점 나누기
11.01	오픈 리허설	
11.22	공연 관람 및 감상 나누기	

# 의정부 공고 청소년과의 만남

## 그리고 16분! 그들의 목소리

2019.09.06. / 의정부 공고 학생부실

의정부 공고에서 여덟 명의 청소년 친구들과 [자전거도독헬멧을쓴소년] 공연 연계 예술교육을 시작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자발적으로 예술교육활동에 참여의사를 밝힌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무려 세 시간 동안 앉아서 각색대본과 원작소설을 함께 낭독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는 점이다. 첫 만남에서 이 친구들이 사회를,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시선, 저마다의 고유한 관계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바들을 오롯이 듣는 일 자체가 매우 값지게 여겨졌다.

십분의 쉬는 시간을 제하면 꼬박 3시간을 이야기 나누는 의정부 공고 친구들과의 만남은 '16분'의 영상으로 담아 한창 작업 중인 공연팀과 공유하였다.

만나지 않고도 만나는 경험! 우리는 그날을 그렇게 기억한다. 오롯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영상을 통해서도 즉물적인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16분'은 우리에게 마치 고유명사처럼 계속 얘기되었다.

그 '16분'의 기록 중 일부이다.

편집·작성/김미정 교육감독

### # 대본에서 재밌었던 거요?

- 윤** 거거 좋던데, 요즘 애들 명품 따지는 거. 그래서 째미 보면 찌인 것처럼 개우겨가지고, 말도 안 되게 찌이라고 막, 그건 좋았어요. 현실이니까. 그냥 현실반영? 막 명품을 사고 싶어 하고, 명품 입는 애들 보면 겉으로는 "아, 존나 한심하다"고. 솔직히 명품 사준다거나 입을 수 있는 기회 있다고 하면 누가 안 입어요? 부럽지.
- 주** 그냥 반복적인 말이란 개개인의 성격?
- 린** 달립니다 달립니다 고추 핫핫 스파이시!

### # 만나보고 싶은 인물은? 만약 만난다면?

- 윤** 소녀요. 아빠랑 언제부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지 묻고 싶어요. 뭔가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진. 태어났을 때부터 "쌍년아!" 그러면서 욕하진 않잖아요. 새끼 댄 다 예쁘네...  
**연** 헬멧소년. 여기서 젤 조용한데 튀잖아요. 말 한 마디라도 하게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궁금해요.
- 주** 헬멧소년이요. 만난다면요? 딱 세워놓고 한 바퀴 뱅 돌아보고 싶어요.
- 린** 헬멧소년. (왜?) 헬로키티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입이, 표정이 없어서 공감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헬멧소년이 말도 하지 않고 표정도 없지만...?) 수남이가 계속 말하잖아요. 헬멧소년은 말을 안 해도 공감하고 있어요.

### # 만약에 대사 한 마디 없는 이 헬멧 쓴 소년이 삭제된다면?

- 모두** (이구동성으로) 안 돼요! 반대. (왜?)  
**윤** 수남이 말동무가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남이 자아를 표현하는 건데... 친구들한테 말하기 쪽팔린 것도, 가족들한테 말 못하는 것도... 그래서 헬멧한테 말하는 거니까. 그게 없으면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 # 마지막 장면, 허무하고 찝찝한 것과 그냥 허무한 것의 차이?!

- 린** 마지막 장면이 너무 허무해요.  
그 삼백만원을, 얻고자 하는 걸 얻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소녀 혼자

중앙에 앉아서 관객 쳐다보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 윤** 그것도 허무하긴 한데, 이건(대본) 찝찝하고 허무해.  
**린** 똥 싸다 끊긴 느낌?  
(그냥 허무한 건?)  
**린** 제가 제안한 건 똥이 나온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똥을 싸고 다 닦고 바지를 올렸는데 똥이 없는 느낌. (어?)  
**윤** 그러니까 진짜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돈 타서 애들끼리 겁나 더 친해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친구 사이가 멀어진다잖아요. 그럼 허무하죠.

### # 원작소설에서 발견해내는 따뜻한 온도와 감성

- 린** 손으로 수남이의 머리를 붓부터 부드러운 볼부터 턱까지 감싸 안았다. 따뜻한 ... 그 부분이 좋아요.  
(텍스트를 보지 않고 그 구절을 오롯이 기억해서 말한다) 그리고 바람의 의미를 말하는 데요, 현대 사람들은 간판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바람밖에 모르고 바람이 싫고 그런 건데, 수남이는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밖에 모른다 그랬을 때, (사이) 속상했어요.
- 린** 아, 쌤, 그것도요! (공연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가씨의 안부보다는 아저씨의 손해가 더 궁금했다" 사람들이 이러는 거. 사람들이 그런 거.

### # 제가 보는 수남이요?

- 윤** 소설에서든 대본에서든 수남이는 다 운이 좀 없고, 불우하고 (불우하다?)  
**윤** 그래서 자기가 독립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남이가?)  
**윤**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알바를 하고, 제가 용돈 벌어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애가 괜찬은 거 아닌가? 어쨌든 집에서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장이 싫어도, 일이 힘들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어쨌든 가게로 가잖아요. 여기(원작)서든, 여기(대본)서든... 어쨌든 돈을 벌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좋은데. 똑심 있는 거잖아요.

### # 알바 이야기 -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그 부당함에 대해서!

**윤** 이번에 알바 그만뒀어요. 사장 진짜 이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주휴수당 주는데 한 군데도 없구요. 웬만해선 다 최저에 맞추고 아니면 반올림해서 8,500원에 맞추고는 주휴수당 안 준다고 그러고, 최저여도 주휴수당 안 준다고 그런 데가 많아요.

**린** 보너스?

**윤** 보너스 아니지. 원래 기본으로 줘야 하는데 그거를 안 지키고...

**린** 신고해.

**윤** 근데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들이 그냥 배 께고 “아, 나 돈 안 줄 거다” 이러면 일이년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고, 서로 귀찮아지는 거거든요. 더 달라고 말 안 한 게, (몰라서가 아니라) 그니까 더러워서 피하게 되는...

**미** 저는 돈은 제대로 받았는데 사장님 인성이 막... 갈빗집에서 일했는데 외국인 언니들이 있던 말이에요. 그 숯컷언니한테 뭘 가져오라 했나봐요. 근데 그 언니가 안 가져오니까 때리고... (모두 놀람) 그냥 장난 식으로 때렸대요. 근데 다른 언니한테도 “아, 저 멍청한 년” 이려고, 저한테도 담배 안 폼는데 화장실 갔다 오면 “너 담배 피지 말라고 했잖아. 화장실에서 그렇게 담배 피다 빨리 죽는 거 알아?” 자기도 담배 막 피면서!

(다들 분개하며 육두문자를 날리고 열을 올리던 그때, 반전의 한 마디!)

**린** 잘 생겼어?

**미** 아니

(모두 웃고, 다시 이어가며!)

**미** 그리고 밥 먹는데, 일하시는 이모들도 다 있는데서 일반고 다니는 애랑 저랑 비교하면서, 저한테 “공부 잘 해?” 그래서 “잘 못해요.” 그러면은 “재 좀 본받아.” 이러면서 “너는 그래서 뭐 먹고 살거냐.”고 막 그러고.

⇒

지금도 벌써 직접 일(노동)하고 용돈 벌어서 쓰면서 잘 살고 있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부당함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분노할 줄 아는데, 누가 누구 걱정한다는 걸까.

이 친구들이 비록 학교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진 않지만, 그 한 가지 사실로 이들이 타인에게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받는 건 너무 부당하다. 이 친구들과 관계 맺고 대화를 깊게 나누다 보니, 학교의 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들이 불성실하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독특한 면면들을 수용하기에 학교 시스템이 너무 유연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들으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마이크를 대어주고 진정으로 듣고자 해야겠다.

## 오픈 리허설 스케치

2019.11.01. / 스튜디오 돌

의정부, 파주 문산 등에서 공연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뤘던 청소년들과 교사 30여명이 오픈 리허설을 보기 위해 국립극단 연습실을 방문하였다. 극단에서는 미리 준비한 작은 기념품과 공연의 소품 중 하나인 마카롱을 선물로 준비하여 드리며 반가운 환영 인사를 건넸다.

오픈 리허설을 열며, 청소년과 공연팀이 소통해왔던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소개하고 공연 장면 중 일부를 시연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 : 김미정 교육감독

공연 장면을 본 후, 각자 다양한 시선들

⇒ 청소년

- 생각보다 정말 빨라서 놀랐다. 진짜 수남이가 달리는 것처럼 템포가 빨랐고 오토바이 뒤를 잡고 가는 느낌이다. 빨라서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실득력이 있었다.
- 재미없었다. 욕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싸우는 것 같지 않았다.
- 현실감 있다. 전 알바를 한다. 돈을 벌어서 용돈도 하고, 놀고, 휴대폰비도 낸다. 가끔 용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께 달라고 말씀드린다. 주기적으로 못 주시니, 미안하다고 말씀하신다. 알바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본다기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하는 게 대단하다고 여겼다.
- 학교 애들 중에 알바를 쉽게 보는 친구들이 있다. 알바가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게 안타깝다.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한 것인데, 그 친구들에게 이 공연을 보여준다면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 교사

- 빈즈 같은 캐릭터는 학교에 한명씩 있는 학생이다. 겉은 밝지만 속은 굼은 친구를 잘 표현해 준 것 같다. 또 수남이가 선생님을 대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선생을 어른으로 대하지 않는다. 요즘엔 같거나 더 낮은 위치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 세상에 잘 회자 되지 않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아쉬웠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고맙다.
- 아빠한테 ‘시발놈’ 이라고 욕을 하는 게, 너무 극단적으로 과장시킨 부분이 아닐까. 아이를 둔 아빠의 입장에서 이입하다보니, 불편했던 부분이다.

⇒ 연출

-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찾아본 리서치의 결과는 이런 아빠와 딸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과는 달리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없는 척 하고 연극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런 작업을 하기까지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많은 고민들을 했고, 감히 바라다면 이런 가정이 혹은 이런 어른이 또 이런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9년 10월 19일은 국립극단 스튜디오 하나에서는 <자전거도둑헬멧을 쓴 소년> 예술교육 활동의 하나로 의정부 공고 청소년과 국립극단 청소년 17인 그리고 공연팀이 만나 예술교육활동을 하게 된 날이었다. 사진과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한 이날에 대해 의정부 공고 미나와 청소년 17인 연서에게 물어보았다.

인터뷰 및 사진 촬영/서현제(예술교육협력 및 영상)

### 10월 19일

**미나** 처음에 못 갔잖아요. 그날은 너무 늦게 일어나기도 했고, 귀찮아서 안 갔는데, 선생님들이 다시 오셔가지고 영상 편집한 것도 보고 미안하기도 해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라고 하니깐 늦게 끝나고, 가서 뭐하겠나 싶어서 가기 싫었어요.

### 서로의 첫 인상

**미나**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보니까 친해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연서** 첫 인상이 안 좋았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오고,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래서 17인 친구들끼리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살 어렵다고 해도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다가가기도 어렵고.

### 어색함이 풀린 순간

**미나** 같이 놀면서요. 같이 온 친구들끼리만 몽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배우님들도 다른 분들도 같이 합쳐서 놀고 그러니까 편해졌어요.  
**연서** 그 때 알았어요. 거리낌 없이 같이 놀면서 우리랑 똑같이 노는 것 좋아하는 청소년이구나!  
**미나** 학교에서 우리끼리 활동할 때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서 부끄러워서 이야기도 잘 못했는데, 그날은 다들 재미있어하고 하니깐 재미있어요.

### 활동 중에 들이 서로 포옹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미나** 등글게 서서 눈 마주치면 서로 자리 바꾸면서 터치해야 하는 건데, 부담스러워서 눈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뭐하지? 뭐하지?’ 하면서 다가갔어요. 그러다가 무난하게 ‘안아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가까이 오니까 먼저 안아줬어요. 갑작스러워서 저는 팔을 벌리지 못한 상태로 “어머”라고 말했어요.(웃음) 바뀐 자리로 돌아가니까 옆에 있던 현서(함께 온 의정부 공고 친구)가 “부럽다”라고 말했어요.  
**연서** 저랑 다른 청소년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을 편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무의식으로 미나를 안아줬던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었어요.

### 배우들과 함께 했던 장면 만들기

**연서** 장면 발표할 때 대본 맞는 원작 글을 골라서 중간 말해야 했는데, 저희가 엄청 고민하다가 미나가 고른 것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 장면이랑 너무 잘 맞아서 미나가 가지고 있는 감성이 올라왔어요.  
**미나** 영상으로만 봤던 배우들이 궁금했는데 만나서 신기하고 만나서 리딩하면서 서로 의견을

배려하고 반영하면서 장면 만드는데, 매번 저희끼리 대본만 보다가 직접 장면해보니까 달랐어요. ‘달립니다. 달립니다.’ 장면을 저희 조에서 만들었는데, 제 의견 받아주셔서 수납역을 하는 연서 언니가 직접 달리지 않고, 저하고 배우님이 주위에서 뛰어다녔는데 부끄럽긴 했는데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연기하는 거는 어색하고 부끄러운데 이렇게 활동하는 건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연극이 만들어지는 알 수도 있고 연극 때문에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이 좋았어요.

### 공연에 대한 기대

**미나**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같이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볼 땐 몰랐는데 활동 같이 하면서 저 배우 수납이 역이랑 잘 어울리겠다 생각했는데 오픈리허설 때 그 배우가 수납이 역할하고 있어서 신기했어요.  
**연서** 산만할 것 같지만(웃음), 기대가 많이 돼요!

⇒ 예술교육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다보면 한 걸음 뒤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생함 안으로 뛰어들어 함께 만끽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보통은 그 순간이 오면 충동을 잠재우고,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그 생생함을 기록으로 남기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번 활동에서 미나와 연서가 서로 안아주었던 그 순간, 그들처럼 나 또한 깜짝 놀라 셔터를 누르지 못하고 가만히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순간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 궁금함과 공유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 못한 아쉬움에 미나와 연서를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각색**  
 김연주 Kim Yeon-ju  
 \* 프로필 9페이지

**연출**  
 윤한솔 Yoon Han-sol  
 \* 프로필 11페이지

**무대**  
 신승렬 Shin Seung-ryul  
 · 연극 <고독한 목욕> <호신술> <말들의 집> <미국아버지>  
 <간혹, 기적을 일으킨 사람> <글로리아> <생각은 자유> <널 위한 날 위한 너>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수탉들의 싸움>  
 <타조 소년들> <노란달 YELLOW MOON> 외

**조명**  
 김형연 Kim Hyoung-yeon  
 · 연극 <말들의 집> <파티> <널 위한 날 위한 너>  
 <이반검열> <코리올라너스> <변칙판타지> <믿음의 기원2: 후쿠시마의 바람> <the LOST> 외

**의상**  
 이은경(EK) Lee Eun-kyung  
 · 연극 <영지> <위험한 실험실 B-123> <우산 도둑> <분노의 포도> <데미안> <로드씨어터 돈키호테> <마트료시카>  
 <모던 타임즈> <허풍선이 남작의연회장> <드림타임>  
 <사천의 착한 살인> 외  
 · 뮤지컬 <앤,ANNE> <야조, 왕의길> 외

**분장·소품**  
 장경숙 Jang Kyung-suk  
 · 연극 <인정투쟁:예술가편> <낙타상자> <이갈리아의 딸들>  
 <죄와벌>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 어서 모두 그의 집으로 가보세요> <아몬드> <거대한 뿌리> 외

**영상**  
 윤민철 Yoon kennie  
 · 청운대학교 무대영상디자인과 교수  
 · 연극 <알리바이 연대기> <갈매기> <1945> <빛의 제국>  
 <뼈의 기행> <글로리아> <히스토리보이즈> <당신의손>  
 <차이메리카> <그을린 사랑> <나는야연기왕> <비행소년 KW4839>  
 · 창극 <산불> <아빠사우르스>  
 · 오페라· <세빌리아의이발사> <안나볼레나> 외

**음악감독**  
 음브레 Ohmbre  
 · 연극 <강철로 만든 무지개> <파랑새> <꿈속에서  
 불어온 바람> <구멍을 살피라> <취발이 외전> <호신술>  
 <바리온더라인> <숨통> <맷고풀고/춘앵리와 처용> 외  
 · 무용 <나로서는> <포옹> <Movement as handcraft> 외  
 · 영화 <미래의 밤> <99년식> 외

**음향디자이너**  
 심태형 Shim Tae-hyung  
 · 뮤지컬 <1976 할란카운티> <외로운 성> <외술 겨레의 등불 최현배> 외

**교육감독**  
 김미정 Kim Mi-jeong  
 · <죽고싶지않아> <오렌지 북극곰> <사물함> <비행소년 KW4839> <타조소년들>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노란달 YELLOW MOON> 외  
 · 어린이극 대본·연출 <씩둑 오리고 바짝 조이고> <톡톡 씩 이야기 비단길> <얼었다, 꿈? 풀려라, 호!> <하얀 눈썹 호랑이> 외

**예술교육 리서치**  
 손서희 Sohn Seo-hee  
 · 연극 <영지> <소년이그랬다> <겨울 이야기>  
 <좋아하고있어>

**무대감독**  
 신승훈 Shin seung hoon  
 · 연극 <갈릴레이의 생애> <갈매기> <얼굴도둑> <이영녀> 외

**조연출**  
 정유진 Jeong Yu-jin  
 · 연극 [연출] <수니다이러리아> | [조연출] <강철로 된 무지개> <두뇌수술> <점과 점음, 잇는 선. 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빛에 대해.>  
 · 뮤지컬 <이몽룡>  
 · 각색 <램프 불, 그리고 낯선 이>

**출연**  
 김홍희 김원태 김청순 이세준 이주형 이지원 박은경

---

**스태프**  
 원작 박완서(소설 자전거 도둑)  
 각색 김연주  
 연출 윤한솔

무대디자이너 신승렬  
 조명디자이너 김형연  
 의상디자이너 이은경  
 분장/소품디자이너 장경숙  
 음악감독 음브레  
 영상디자이너 윤민철  
 음향디자이너 심태형  
 조연출 정유진  
 무대감독 신승훈

교육감독 김미정  
 예술교육리서치 손서희  
 예술교육협력 및 영상 서현제  
 예술교육기록 김희주

리서치 일러스트 및 영상디자이너 조성정

무대디자이너 어시스턴트 김혜림  
 조명디자이너 어시스턴트 김대현  
 소품디자이너 어시스턴트 남혜연

기술감독 김무석  
 제작감독 홍영진 김혜란  
 조명감독 류선영  
 음향감독 음창인 박정현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오퍼 김재원  
 영상오퍼 최민숙  
 음향오퍼 박정현  
 무대크루 김영주 권라임  
 의상진행 최민희  
 음향팀 이슬 왕영석  
 조명팀 손민영 장재영 오정훈  
 영상팀 김석기 김재성

무대제작 와스테이지(대표 조환준)  
 의상제작 이케이코스튬(대표 이은경)  
 소품제작 분가분가(대표 장경숙)  
 영상임차 인터렉션랩(대표 윤민철)

메인 디자인 페이퍼프레스  
 응용 디자인 에이치디자인  
 홍보사진 이강혁  
 공연/연습사진 장성용 정원균  
 기록영상 미니멀랩  
 홍보물 인쇄 인타임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변정원 이승이  
 마케팅 김효진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울 조영채  
 대학생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6기 김희진 서효영 이가운  
 임소영 정기용 황지연  
 티켓 김보배 이현아 김보전 김보연  
 대표 안내원 고은지 김다애 김인혜 노소연 박민주  
 하우스 매니저 김수현 김나래  
 안내원 김성주 권묘형 전준형 박만수 이지은 이해조 정진영  
 김소희 오민지 정주호 지윤아 연하은 이민경 임지은

**예술교육 및 리서치 참여**  
 [예술교육]  
 · **의정부 공고:** 권현서 김미나 김희주 박서윤 이다인 이학주  
 전채연 전혜린 함슬비  
 · **청소년 17인:** 강명진 나연서 박세은 박정환 서정빈 석지민  
 손예은 양혜원 유한서 육선민 윤재희 이보배 전예린  
 주찬하 최선호 최지원

[리서치]  
 · **문산수역고:** 김종빈 유재욱 전우진 최지우 한세현 황철연  
 · **의정부 공고:** 이학주 · **성동글로벌경영고:** 황서하  
 · **영주여고:** 유한서, **영주동산고:** 차지혜  
 · **청주중앙여고:** 육선민 이다빈, **청주산남고:** 남효진  
 · **이천 제일고:** 1학년 4반(25인) 및 장윤호 교사

**프로그램북 제작**  
 기획/편집 김미선 황윤지  
 사진 장성용 정원균  
 줄거리 번역 알리사 김  
 디자인 양옴  
 인쇄 미림아트

제작총괄 김성제  
 프로듀서 김미선  
 제작진행 황윤지

제작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헌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조현래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박으뜸 **공연자료 관리**  
 나수경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박소영 **프로듀서 보**  
 정은서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최윤영 이승이 변정원 **홍보**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김울 **마케팅**  
 이현아 김보진 김보배 김보연 **티켓**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조영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최슬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나해민 **무대기계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이민희 **인사·복무·복리후생**  
 정병욱 **시설·운영·공사**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정 **예술교육**  
 김연지 **배규림 작은극장**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주 양서빈 이수미 이원희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세별 조남용 홍아론

# 〈자전거도둑 헬멧을 쓴 소년〉 리서치

## 청소년과 노동, 알바, 직업에 대한 6개의 이야기

‘축 서울대 입학 0명 김00, 이00’가 아니라, ‘2019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용접부문(박00)’, ‘스마트전자과 최00, 임00 삼성전자 T직군 합격 축하’와 같은 문구가 있는 특성화고 교문의 현수막을 눈여겨 본 적이 별로 없었다. 새벽 1시에 편의점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계산을 하는 알바 직원의 얼굴을 슬쩍 보고 막연히 대학생이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디에나 있음에도 발견하는 데에 소홀했던 청소년들의 노동, 알바, 직업에 대한 서로 다른 6개의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6개의 이야기를 수집한 과정을 되짚어 보고, 그렇게 찾은 평범한 이야기를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눈에 담아 보기 위해 링크를 만들어 소개한다.

예술교육 리서치 손서희  
리서치 일러스트 및 영상디자인 조성정

#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 리서치— 6개의 이야기를 담은 기행록

글\_손서희 (예술교육 리서치)

## 10월 10일

의정부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주’는 치킨 배달 알바를 한다. 알바할 때의 학주의 시선을 영상에 담아보기로 하고 학주가 찍어 보내준 샘플 영상을 받았다. 도로 표지판과 배달을 시킨 집 건물 입구가 살짝 보인다. 현관벨을 누르는 딸깍 소리, 벨이 고장난 것을 바로 알아채고 두 번 문을 두드리며 ‘배달이요’ 하는 목소리. 문이 열리기까지의 현관 앞 복도의 몇 초간 정적은 생소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희뿌연 밤길을 오토바이가 부아앙 달린다.

## 10월 19일

국립극단에 온 학주에게 액션캠을 하나 빌려주고 간단한 작동법을 알려주었다.

같은 날 저녁 7시. 국립극단 연습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 17인’ 중 영주 사는 한서와 청주 사는 선민이를 만났다. 이번 리서치의 취지를 설명한다. 청소년끼리 알바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이다. 형식은 카톡이 어떨까? 취지가 금세 공유되었다. 어떤 친구와 무슨 주제로 이야기해 볼지 계획을 세웠다.

## 10월 21일

이천제일고 장운호 선생님과 연락이 닿았다. 닷새 동안 학교로 전화를 드릴 때마다 수업 중이고 종례 중이어서 번번이 통화에 실패했다. 오늘은 조회 후 9시 넘어서 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다른 일로 KTX를 타느라 또 시간을 놓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통화 신호가 안 잡히기도 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 연결이

되었다. 조용한 기차 안, 말은 꼬이고 긴 통화는 어렵겠고 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다짜고짜 이메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저를 어떻게 아시고 연락주신 건가요?” 선생님은 어리둥절해 하시면서 메일 주소를 알려주셨다.

## 10월 22일

학주는 무엇을 찍어야 하는지 감이 잡힐까? 카메라는 달고 다닐 만한가? 운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나 손님들에게 오해를 사는 건 아닐까? 약속을 정하고 학교를 찾아가 학주를 만났다. 일할 때 입는 추리닝 차림으로 상담실 소파에 꼭 주저앉은 학주가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은 있는 건가 슬쩍 걱정도 된다. 입은 마스크로 가리고 어색해서 눈도 안 마주쳐 주었지만 그래도 알바와 영상에 대한 질문에는 선선히 대답해 주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에 살짝 웃음을 섞어 “응, 지금 학교야. 이따가 통화해.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하는 걸 보니 조금은 흥미로워 하는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을 놓기로 했다.

## 10월 25일

문산수억고 학생 6명이 동아리 시간을 빼고 모여서 각자의 알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생각보다 서빙 알바를 많이 한다는 걸 알았다. 최저시급보다도 꽤 넉넉하게 받는 세현이는 알고 보니 삼촌네 돈가스 가게에서 일을 한다. 지우가 일하는 곱창집은 시스템이 이상하다. 바쁘지 않으면 한시간만 일하고 돌아가기도 한단다. 지역이 지역인지라 재욱이는 임진각 매표소에서 일했다. 알바를 하는 이유, 알바 장소의 여건, 번 돈에 대한 쓰임새까지 참 다르기도 달랐다.

### 10월 29일.

다른 학교는 협력학교, 예술교육팀 등으로 극단과 이미 연결이 되어 있지만, 장윤호 선생님께는 정말 난데없이 전화를 드린 셈이라 부탁에 응해주시려나 유난히 긴장이 된다. 2017년 청소년극 공연을 보러 온 산본공고 연극반 학생들에 대한 깊은 기억, 이번 공연 준비 중 참고한 책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에서 인상 깊게 읽은 장윤호 선생님의 인터뷰, 그 분의 전임지가 산본공고였다는 은유 작가의 이야기. 사소하고도 우리만 알고 있는 인연을 붙들고서 다짜고짜 부탁을 드리게 됐다. 조희와 종례를 녹음해 들으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고등학교 교실의 익숙한 풍경과 함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만 언급되는 일상생활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부탁의 내용이다. 인터뷰라도 해 주십사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이천으로 간다.

장윤호 선생님은 흔쾌히 조희와 종례를 녹음하시기로 하고 학교를 안내해 주신다. 전산응용기계과는 실습 수업이 진행되는 건물이다. 밀링머신과 선반기계 등 실습에 필요한 기계 때문에 건물 천장이 꽤 높다. 기계실에는 쇠를 깎을 때 마찰을 달라는 윤활유통이 있고,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여 있다. 커다란 용접 실습실 안에는 칸막이로 막힌 10여개의 실습실 입구가 나란히 늘어서 있고, 바깥 공간에는 또 20여 개의 책걸상이 있다. 한편에는 용접마크도 놓여 있다. 수업 시간에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배치이다. “보통과 선생님들은 근무하시면서 1년에 한 번도 이 건물에 안 와보실 거예요. 새로 부임하실 때 간단히 투어를 시켜드리는 경우는 있지만.”

### 계속 10월 29일.

성동글로벌경영고 패션디자인과에 다니는 서하를 설득하는 일은 꽤나 부담스러웠다. 서하는 청소년 자율공간인 ‘아지트139’를 통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학생이다. 학교 과제를 하면서 옷을 재단하고 결과물을 친구들에게 피팅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을 떠올리고, 이번 프로젝트와 연결시키기로 했지만 부담감에 섭외를 가장 뒤로 미뤄놓은 게 서하이다. 아는 사람 설득하는 게 더 무섭다. 서하는 마침 색채 과목의 과제를 하고 있다. PPT를 만드느라 이를 밤을 샜다고 한다. 바쁜 틈에 끼어들어 ‘네가 그동안 했던 디자인 과제나, 실습하면서 찍은 사진을 좀 달라고, 너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좀 빌려 달라’고 했다. 예상 외로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 10월 30일.

학주에게서 1차 영상을 받았다. 영상을 받기까지 최은정 선생님이 애를 먹었다. 가게가 바빴는지 학주와 연락이 쉽사리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에서 연극수업을 하는 김미정 교육감독에게 메모리카드를 전하기로 했다가

시간을 못 맞춰서 실패. 퀵서비스로 메모리카드를 배송받기로 한 시도는 학주가 깜빡하고 메모리카드를 집에 놓고 출근해서 또 실패. 결국 집에 있는 룸메이트와 통화한 끝에 간신히 퀵서비스 기사님이 손톱만한 메모리카드를 들고 오셨다.

파일을 열어보았다. 헬멧에 매단 카메라가 신경 쓰이는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한 쪽 손이 계속 카메라를 조정한다. 두 번째 파일에서는 카메라를 잘못 장착했다. 길이 뒤집힌 채로 오토바이가 달린다.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 위가 아니다. 밤늦게 불 꺼진 가게에서 학주가 매단 카메라가 여기저기 서성인다. 괜히 매장 홀을 둘러보고 음료수 냉각고 앞에 서기도 한다. 주방에 들어가서는 싱크대도 바라보았다가, 설거지를 마치고 엎어놓은 보울을 뒤적뒤적한다. 아무도 없는 정적 속에서 뭔가 더 카메라에 담을 게 있는지 고심하고 있는 걸 알겠다. 갑자기 고마운 마음이 덜컥당하고 생겼다.

### 10월 31일

새벽 2시에 한서와 선민이 보낸 메일 알람이 울린다. 원래 기획과는 약간 달라져 진지한 인터뷰 결과가 메일에 담겨 있다. 그래도 한서가 보내준 인터뷰 녹음 파일에는 다른 친구들이 끼어두고 뒤에선 노래를 부르고 난리도 아니다. 그 와중에 한서 친구 지혜가 펼쳐 놓은 악덕 사장 이야기는 점점 격양된다. 선민이는 자신이 리서치가 된 마음으로, 카톡으로 인터뷰한 친구들의 알바 이야기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알려주었다.

### 11월 10일

알바하느라 바쁜 학주에게 자료를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일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일할 때 장갑과 신발에 넣으라고 핫팩을 한 꾸러미 샀다. 포천. 가게 앞에서 학주에게 전화를 하니 배달하고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초저녁, 학주가 일하는 가게는 생각보다 작았는데 조명이 참 밝았고 평온해 보였다. 집이나 가까우면 들어가서 치킨이라도 포장해 가겠지만 그것도 아니니 가게 앞에서 기다리기로 한다. 학주는 오토바이에서 내리자마자 액션캠을 건네준다. “오류가 떠서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한 번은 친구가 오토바이 뒤에 타서 카메라 들고 찍어줬어요.” 고맙다고 핫팩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 쑥스럽게 고맙다고 하면서 배달통에 집어넣는다. 일하는 중이니 더 길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다. 학주는 가게로 들어갔고, 나는 다음 배달을 출발하는 뒷모습이라도 좀 찍어볼까 잠깐 고민하고 있는데, 30초도 지나지 않아 가게를 나온 학주는 다음 배달을 하러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출발한다. 오늘은 헬멧도 안 썼던데 빨리도 사라졌다. 집에 도착할 때 비가 내렸다. 전국을 빗자루처럼 쓸고 가는 비구름이라고 하니 포천에도 비가 오겠구나, 헬멧을 쓰면 머리는 안 젖을 텐데, 비오는 날 내 치킨을 들고 왔던 배달 노동자들이 우의를 입었던가 어땠던가 따위를 생각했다.

### 11월 11일.

문산에 철연이를 만나러 갔다. 알바하면서 번 돈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 영수증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지난 2주 동안 딱히 영수증 생길 지출은 없었다고 한다. 지출이 많지도 않았고 그나마도 인터넷으로 결제한 것들이라서, 대신 가게부를 꼼꼼하게 적고 있었다. 가게부를 보여주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사생활을 엿보게 해 달라는 무례한 부탁에 응해준 철연이가 고마워서 약간의 빵을 손에 들려주는데 하도 사양을 해서 실랑이를 했다.

### 11월 12일

다시 이천. 장윤호 선생님께 녹음기도 받아야 하고 도와준 1학년 4반 학생들에게 직접 인사도 해야 하니까. 1학년 4반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장윤호 선생님은 프로그램북에 실기 위해 부탁드린 글을 쓰시면서 느낀 알 수 없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신다. “왜 평소와 달리 쉽사리 글이 안 써지는지 궁금해서 계속 생각 중이에요.”

### 계속 11월 12일

서하의 이야기 형식에 대한 계획이 바뀌어서 자료를 직접 설명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보자고 했다. 싫다는 서하와 30분 동안 공간을 뱅뱅 돌며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아지트139’에서 친구들과 함께 볼 넷플릭스 계정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서하는 자신의 자료를 인문계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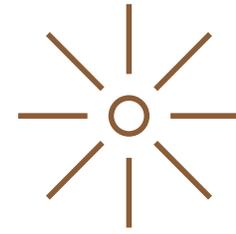
다니는 친구에게 설명해 주었다. 나중에는 “이걸 설명하고 싶었어.” 하면서 ‘샘플작업지시서’에 대해서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어느 새 약간 신이 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 11월 14일

기행문을 정리하는 날은 수능날이다. 휴대폰 속 단체 카톡방에서는 수능 보느라 고생했다는 인사말이 연신 나타난다. 며칠 전 철연이에게 수능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다. 알바에 치여서 진로는 유예하는 건가? 속생각은 이랬던 것 같은데, 철연이는 정보 보안 분야로 이미 진학이 결정돼서 수능은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편 학주는 지금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돈을 좀 모아서 졸업 후 자동차 관련 공부나 취업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16살에 ‘나는 고등학교를 자동차과로 가야지, 전자과로 가야지’ 쪽 부러지게 결정하는 것도 당연하기만 한 일은 아니겠다 싶어 고개를 끄덕였다. 서하는 졸업 후에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해당 전공으로 대학 진학을 하겠다고 말할 적이 있다.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필요한 이메일 쓰기, 기획서 쓰기 같은 실용적인 글쓰기 수업을 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잠깐이었지만 6개의 이야기를 찾아다니면서 딱했다가, 자랑스러웠다가 놀라웠다가 걱정스러웠다 웃겼다가 그렇게 마음이 중구난방 바뀌었다. 장윤호 선생님의 이번 글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혼자 짐작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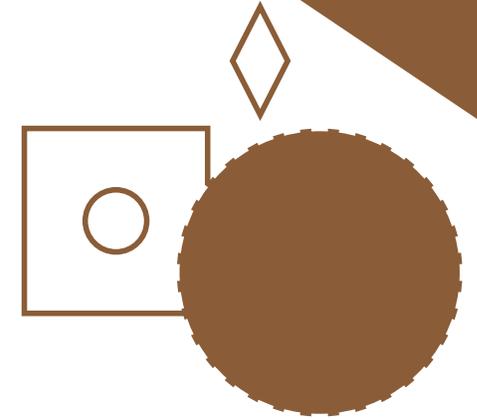
### 32페이지 QR코드 개요

<배달 왔습니다>	배달 알바생의 시선을 따라 가기	영상 (이학주)
<너 처음 알바한 게 언제임?>	청소년이 직접 인터뷰한 청소년 알바기	사운드 (육선민-남효진,이다빈 / 유한서-차지혜)
<좌충우돌 알바기>	문산 청소년 6명의 알바기	텍스트 (김종빈, 유재욱, 전우진, 최지우, 한세현, 황철연)
<알바소년 가게부>	청소년이 벌고 쓴 한 달 가게부	이미지 (황철연)
<자, 종례하자>	전산응용기계과 1학년 4반의 조희와 종례	사운드 (장윤호 교사, 이천제일고 1학년 4반)
<패턴메이킹 2교시, 서양의복실습 2교시>	특성화고 재학생이 설명하는 전공 수업	영상(황서하)



그 시작과  
인식의 변화를  
바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그 태생부터 다가가는  
어린이청소년극.  
예술이 일상으로,  
일상이 예술로의 첫 걸음.  
즐겁고, 쉽고, 깊게!



# 우리는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듭니다

##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소장 김성제)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2011년 5월, 문을 열었다.

청소년 관객층에 대한 연구와 청소년극 제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청소년극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극 제작 및 지역공연, 작품개발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젊은 작가·연출가·배우 육성을 위한 창작 인큐베이팅 작업으로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작은극장프로젝트', 예술가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소년예술가탐색전> 등이 있다. 주요 청소년극 레퍼토리로는 <소년이그랬다>, <레슬링 시즌>, <빨간 버스>, <비행소년 KW4839>, <특산느를 위한 발라드>, <타조 소년들> 등이 있다.

<패턴메이킹 2교시, 서양의복실습 2교시>

<배달 왔습니다>

<너 처음 알바한 게 언제임?>



<좌충우돌 알바기>

<자, 종래하자>

<알바소년 가게부>

## 국립극단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 (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04534)